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등록 카드와 중보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oom 접속은 ID:701 256 8865 PW: Jesus 혹은 042061
 생일: 김준혁(11/4), 장대현(11/9), 오경희(11/28)

2. 금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변경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교회에서 온 라인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E-transfer 현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지난 주 통계			
주일 현금	CD \$35	1,2,26	
감사 현금	CD \$40	1,2,8	
십일조	CD \$160	1,2	
장년 출석	7	어린이 출석	8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구원하심이
 보좌에잇신
 우리하나님과
 어린양께잇도다

가림(2022.11.20)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다트머스 한인교회 주일예배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계 7:1-17	다함께
설 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우리 보좌 앞에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헌 금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요한계시록 7:1-17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요
 5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목회자 칼럼

요한 계시록의 본론 부분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3 환상은 그 사이에 마치 삼경처럼 섞여진 작은 또 다른 계시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계시들은 본계시들 사이의 중간계시로서 본계시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본계시의 전후 순서에는 지배되지 않으며 앞이나 뒤의 본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7장에 나오는 중간계시는 6장과 8장에 나오는 일곱 인의 순서와는 관련이 없지 않은 내용면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즉 7장의 중간계시는 6:17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8장부터 전개되는 7나팔 심판을 면할 자를 보여주는 보충적인 계시입니다. 이런 중간계시가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3개의 보충계시가 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사이,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 일곱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7장에 등장하는 일곱 번째 인 전에 나오는 구원받은 이들의 대한 환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4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 9:1-6의 본문과 병행이 됩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자인 'n(타우)'를 새겨 넣게 하시고 이마에 표가 없는 이들을 심판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즉 에스겔서에서도 이마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표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시의 인이 영생과 죽음의 표시라는 대비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은 재앙에서 비껴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의 신이 닿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다. 즉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은 정통적으로 세례와 연관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로서 세상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약의 할례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과연 인 받은 자의 수가 정해진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 받은 이들의 수는 이스라엘 12지파별로 12000명입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제외되었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한 지파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단 지파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르지 않고 동일한 12000명이라는 수만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소수이며 결정론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단 지파의 제외는 선택받은 이들 중에서의 배교와 타락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스스로 저버린 이들(사울왕, 가룟유다)이 있음을 보여주며 므낫세지파의 합류는 자격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2000은 (완전수 12를 총만을 의미하는 10으로 두 차례 곱한 수)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정해진 수, 특정한 수가 아니라 충만하고 가득한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9절에 등장하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를 해석함에도 합당합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12지파의 144000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이고 9절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는 신약성경에서 혈통적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유대인과 할례의 해석과 충돌됩니다. 그래서 12지파와 흰 옷을 입은 수 많은 이들 모두가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참 이스라엘백성)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손에 잡은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으로 그들이 삶의 영적 전쟁, 그리고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찬양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는 그들의 거둔 승리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삶의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 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들에게 16-17절에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트머스한인교회 김승용 목사